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 ·  
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1792 |
|----------|------|

발의연월일 : 2024. 7. 16.

발 의 자 : 김용만 · 김준혁 · 이수진  
정진욱 · 김용민 · 복기왕  
민병덕 · 오세희 · 김태선  
이재관 · 박지원 · 박수현  
김성희 · 허 영 · 정준호  
임오경 · 임미애 · 박정현  
박해철 · 민형배 · 채현일  
황정아 · 고민정 · 박희승  
이훈기 · 김 현 · 백승아  
추미애 · 박지혜 · 문금주  
허성무 · 문대림 · 이용우  
김 윤 · 장종태 · 이재강  
문진석 · 손명수 · 서영교  
이기현 · 김우영 · 소병훈  
안규백 · 양부남 · 권향엽  
이소영 · 이해식 · 정성호  
김윤덕 · 강유정 · 차지호  
김원이 · 김영호 · 김동아  
최기상 · 위성곤 · 한정애  
김민석 · 서영석 · 이인영  
전재수 · 강득구 · 전진숙  
김선민 · 김준형 · 이원택

한창민 · 조 국 · 권철승  
강훈식 · 박상혁 · 김한규  
백혜련 의원(73인)

##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조형물이자 여성 인권과 평화의 상징물이라고 인식함.

이탈리아 최초이자 해외 14번째인 스티티노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환영하며,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소녀상의 의미에 공감하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세계시민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번 이탈리아는 물론 미국, 호주, 필리핀, 독일 등에 이미 세워져 있는 소녀상에 대해 철거 주장을 지속하고 있음. 국제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그 역사를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소녀상 건립 방해와 기존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에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음.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 및 철거 요구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역사부정 행위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이어져 옴. 오히려 한일 관계 개선을 명

목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와 같이 과거사를 성급하게  
봉합해 버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위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저  
해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임. 한국  
정부의 무대응과 대일굴종외교 등 퇴행적 행태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것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해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  
속적인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 중단과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  
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역사 부정 행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  
인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 등의 즉각적인 중단과 과거사에 대  
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 및 국제사회(유엔 CEDAW,  
인권이사회 등 권고)가 요구하는 대로 책임 있는 사죄와 배상을 해  
야 할 것이며, 소녀상 건립 등 기념과 추모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  
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방해, 철거 요

구 행위에 대응해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존치되고 세계적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 진실과 평화,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의 소녀상의 전세계 확산과 영구적 존치로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상존하는 전시 성폭력 근절 등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한다.

## 제안이유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미국, 호주, 필리핀, 독일, 이탈리아 등 세계 현지의 일본대사관과 우익 단체를 통한 압박과 항의, 소송, 허위 정보 유포 등을 자행하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및 존치를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

1990년대부터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 미국하원결의안 발의 및 채택,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설립, 관련 전시회 개최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로비를 위한 법률회사, 홍보 회사까지 활용함.

일본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1965년 한일협정, 2015한일합의 등으로 해결된 일이며, 한국에서 국제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고 주장하는 왜곡된 영어 자료를 만들어 해외 박물관, 정부 등으로 유포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해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지속적인 일본 정부의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결의안을 제안함.

또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평화의 소녀상의 영구적인 존치와 세계적 확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며 결의안을 제안함.